



통합의 강강술래 5·18민주화운동 36주년을 맞은 18일 광주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윤장현 광주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 김관용 경북지사가 국민대통합을 기원하며 강강술래를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33번의 종소리로 부활한 '오월 정신'

민주의종 타종식...대구·경북지사, 외신기자 등 참여

5·18 민주화운동 36주년 기념일인 18일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5월 정신'을 되새기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광주시는 이날 정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민주의 종각에서 민주의 종 타종식을 열었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 등 지역 인사와 영호남 화합을 염원하는 뜻에서 권영진 대구시장, 김관용 경북지사 등이 타종식에 참여했다.

또한, 5·18을 가장 먼저 세계에 알린 독일 언론인 고(故) 위르겐 힌츠페터씨의 부인 에델트라우트 브람슈테트(79) 여사와 브래들리 마틴(미국·더 볼티모어 선), 노널드 커크(미국·시카고트리뷴), 노만 쇼프(미국·아시아월스트리트저널), 팀 셔록(미국·저널오브버마스) 등 4명의 '5·18 특파원'도 타종 행사에 참여해 타종의 의미를 더했다. 5·18 단체 대표자와 올해 광주인권상을

받은 베트남의 인권운동가 누엔 단 쿠에(Nguyen Dan Que) 박사 측 대리인도 타종식 자리에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3개 조로 나눠 11번씩 총 33번 종을 울렸다. 타종식에 이어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는 5·18 대동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한 강강술래가 펼쳐졌다. '민주의 종'은 민주와 인권, 평화의 도시 광주를 상징하는 의미를 담아 2005년 10월 제작됐다. 지난해 5월 18일 옛 전남경찰청 차고지

에 세워진 민주의 종각에 안치됐다. 한편, 5·18 민주화운동 제36주년을 맞아 광주를 찾았던 5·18 당시 외신기자들은 오후 윤장현 시장과 면담하고 5·18 당시 시민군 대변인이었던 윤상원 열사의 생가를 방문한 뒤 19일 광주를 떠났다. 힌츠페터씨의 유족도 이날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열리는 광주인권상 시상식을 마지막으로 공식 일정을 모두 마친 뒤 19일 독일로 돌아간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이모저모

'임 행진곡' 제창 거부에 침묵시위...주먹밥 나눔 재현

18일 5·18민주화운동 제36주년 기념식이 거행된 국립 5·18민주묘지는 추모 열기로 한껏 달아올랐다. 기념식이 4년만에 한 장소에서 열리면서 열기는 뜨거웠지만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과 제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곳곳에서 정부에 항의하는 의사 표시가 잇따랐다. 기념식장 주변에선 5·18 정신 가운데 하나인 '나눔'을 상징하는 주먹밥 나눔 행사가 열려 방문객의 눈길을 끌었고, 광주트라우마센터는 이날 '5월 심리치유 이동센터'를 운영했다.

박형석씨의 생애에 대해 소개했다.

시민·방문객에 나눔 실천

○5·18구속부상자회는 이날 오전 국립 5·18민주묘지에 들어서서 길목에서 '주먹밥 나눔 행사'를 열었다. 1980년 5월 계엄군에 맞서 싸운 시민군들에게 시민들이 주먹밥을 건네며 나눔을 실천한 것처럼 이날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에게 작지만 뜻깊은 나눔을 실천한 것이다. 노란 앞치마를 두르고 주먹밥을 만드는 얼굴은 시종 미소로 가득 찼고 주먹밥을 받아든 방문객들도 얼굴이 환해졌다.

광주시의원 10여명 제창 촉구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광주시의원 10여명은 이날 정부 기념식에서

참석을 거부하고 국립 5·18민주묘지 민주묘지 앞에서 침묵시위를 벌였다. 지난 16일 국가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 방침을 밝힌 뒤 '정부에 항의의 표시로 침묵 시위를 벌이겠다'는 고 한 약속을 지킨 것이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기념곡으로 지정하라'는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30분 이상 시위가 지속됐을 때, 노회찬 국회의원 당선인 등 정의당 관계자들도 시위에 동참하면서 힘을 보탤었다.

트라우마센터 '치유 센터' 운영

○기념식장 주변에선 5·18피해자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5월 심리치유 이동센터'도 운영됐다. 광주트라우마센터 관계자들은 "80년 5월, 광주를 지켜낸 당사자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광주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라는 따뜻한 인사를 건네며 5·18 피해자들을 맞이해 박수를 받았다. /박정욱·김형호·김경민기자 kki@

기자 노트

맨부커상과 '오월 광주'



박성천
문화 2부장

소설가 한강이 세계 3대 문학상 가운데 하나인 맨부커상(Man Booker International Prize)을 수상한 것은 오랜 침체에 빠진 한국 문학에 내리는 단비였다. 표절과 문단권력, 독자 감소 등 한동안 한국문학을 둘러싼 뉴스들은 대부분 우울한 소식이었다. 그 뿐 아니라

웃 나라인 중국과 일본이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했지만 한국은 반반이 세계의 벽을 넘지 못한 채 변방에 머물러 있었다. 한류로 대변되는 케이팝(K-POP)과 드라마, 영화 등은 세계무대를 주름잡는 지 오래됐지만 말이다.

그러나 이번 한강의 수상은 우리 문학도 세계무대에서 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쾌거였다. 즉 좋은 작품이 좋은 번역자를 만나면 문학의 세계화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바로 이 지점에서, 외부인(세계)의 관점에서 하나의 메시지를 주목하고 싶다. 수상작 '채식주의자'는 폭력에 대한 저항과 인간 존엄에 대한 사유가 서정적이면서도 아름답게 형상화된 작품이다. 한 작가의 소설이 반향을 일으킨 것은 세계인들의 감수성이 그의 메시지에 공감했다는 방증이다.

알려진 대로 한강은 광주 출신 작가다. 한 작가의 소설이 일관되게 인간존엄과 모든 폭력의 고발에 초점을 둔 것은 '광주의 오월'과 결코 무관치

않다. 한 작가는 어린 시절, 아버지(소설가 한승원)가 보여주었던 사진첩을 보고 80년 5월 광주의 참상을 알게 되었노라고 말한 바 있다. '채식주의자'와 함께 주목받는 또 다른 작품 '소년이 온다'의 모티브가 '광주의 오월'이라는 국가 폭력에 근거한다는 사실은 세상 놀랄 일 아니다. 이 소설은 5·18 당시 시위대에 속해 있었던 친구의 시신을 찾은 한 소년의 이야기다. 작가는 무자비한 국가 폭력이 어떻게 어린 생명들까지 죽음에 이르게 했는가를 추적한다. 영국 가디언을 비롯한 세계 유수의 언론은 "인간 존엄에 대한 보편적 이면서도 근원적인 질문과 사유를 던져준다"고 찬탄했다.

이렇듯 세계인들은 폭력이라는 보편적 주제에 대해 공감하며 광주를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80년 5월, 정작 폭력을 행사했던 가해자들은 어떤가. 그들은 여전히 침묵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보존처는 오월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마저도 일도당도 않은 이유로 재검을 물렸다. 세계인들은 '폭력'이라는 보편적 주제에 공감하며 한국문학과 문화를 이야기하는데 말이다. 유해어처럼 거론되는 '소통'이라는 말은, 기실 폭력에 희생당한 피해자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감수성이 먼저 전체돼야 진정한 소통이 가능할 것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세계 30개 도시 함께 나눈 5·18 의미

뉴욕·독일 등 10개국서 기념식

제3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기념식 외에도 5·18꽃등불 대회, 5·18주먹밥 한마당, 5월 치유 사진전, 시민 추모보향 등 행사가 함께 열렸다. 이날 서울광장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미국 뉴욕, 독일 베를린 등 해외 10여 개국 30여개 도시에서도 한인회와 호남 향우회를 5·18 기념식이 열렸거나 또 열릴 예정이다.

5·18기념재단은 18일을 전후로 미국 뉴욕·워싱턴 등 8개 도시, 일본 도쿄·오사카 등 2개 도시, 중국 상해·심양 등 5개 도시를 비롯해 독일,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등에서 5·18 기념행사가 치러진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광주정신은 인권, 민주, 평화, 대동이었고 이것은 제 믿음과 소신 그리고 행동의 근거였다"며 "광주정신이 역사의 나침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대지, 급매

- 전남 여수시 서교동 668-7, 8번지 서교동 로타리 우리은행 바로 옆
- 대지 260평 (120평 140평 분할 가능)
- 일반 상업지역 / 6차선 도로 접 / 현, 주차장
- 시세 / 감정가 - 23억원
- 용 12억 8천만원 있음 / 법인체 인수 가능
- 매매 - 협의
- 병원 / 사무 / 무인텔 / 상가 / 대형마트 등등 적합
- 1층 조립식 건축 후 상가 임대료 1,200만원 예상
- 주인직매 H. 010-8829-6876

대단위 APT 밀집지역 근린상가

→

- 광주 서구 금호동 243-6번지 서광병원 맞은편 4거리 코너
- 7층 건물 중 701호 (7층 전체) 130평 (실형 89평)
- 대형주차장, 4면 유리, 전망 최고
- 감정 / 시세 - 7억
- 매매 - 6억 2천만원
- 법인체 인수 가능
- 현재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3백만원 포함
- 주인직매 H. 010-3605-5000

숙박 호텔급 대형 모텔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객실 58개
- 시세 / 감정가 - 15억
- 매매 - 10억 (조정가능)
- 경매로 7억 3000만원에 낙찰
- 용 6억 3000만원만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준비중 (공사비 4억 예상)
- 리모델링 후 연 4억 이상 순수익 가능
- 리모델링 후 20억 이상 매매 가능
- 소유자 H. 010-3605-5000

경매투자자

- ▶ 투자 하실 분! 공동 투자 가능 연 20% 수익 보장
- ▶ 비법 배우실 분! 특수물건만 취급 교육비 등 1200만원
-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주)오천경매
H. 010-3605-5000